



부안 채석강, 책을 쌓아 놓은 듯한 해식단애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



부안 마실길을 찾은 가족들이 쉬며 걸으며 여유있는 시간을 즐기고 있다.



마실길을 찾은 방문객들.

# 서해 절경 따라 사뿐사뿐...봄 속으로 마실가세

## 힐링 가득한 부안 마실길

### 전북

부안마실길 백미-3코스 적벽강 노을길, 6코스 쌍계재 아홉구비길  
개나리, 벚꽃, 진달래... 봄꽃의 향연이 펼쳐지더니 어느덧 초여름 더위가 성큼 다가온다.

삶의 여유를 찾아 길 떠나기 좋은 날, 여행하면 생각나는 곳이 많지만,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지라면 '힐링이 가득한 축복의 땅' 부안 마실길을 추천한다.

부안 마실길에는 눈길을 사로잡는 자연의 속살과 향기 가득한 자연의 냄새, 자연의 소리가 있다. 신발을 벗어 던진 가족들이 손을 잡고 부드러운 모래위로 사뿐사뿐 발을 땄다. 밀려드는 바닷물을 느끼고 바람을 맞으며 여유를 찾는다. 아이들의 즐거운 표정은 바다와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일 것이다.

특별한 준비물은 필요 없다. 봄날에 어울리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부안의 자연을 담아낼 넉넉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

부안 마실길은 전북도가 전라도 정도 1000년인 2018년을 맞아 이미 지역 내 조성된 길 가운데 '걷기 좋고, 전북의 생태·역사·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한 '전북 1000리길'에도 4개 코스가 포함되는 등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부안 마실길 그중에서도 백미인 3코스 적벽강 노을길(성천~격포해수욕장~격포항, 7km)과 6코스 쌍계재 아홉구비길(모항해수욕장~왕포, 11km)을 소개한다.



부안 적벽강으로 이어지는 마실길 3코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서해 파도와 바람을 즐기며 걷고 있다.

### ◇자연경관 우수·서해 절경·적벽강 노을길

적벽강 노을길은 부안 고사포해수욕장에서 하섬 전망대와 적벽강·수성당·채석강·격포항으로 이어지는 총 9km(3시간 소요) 코스이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으로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해안선을 따라 걸으며 서해의 절경을 볼 수 있다. 특히 지질자원이 우수한 채석강과 적벽강은 지난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기도 했다.

부안을 대표하는 채석강은 달이봉 아랫도리를 감아 도는 모양의 해안 단층이 마치 수만 권의 책을 쌓아 놓은 듯한 해식단애(海蝕斷崖)가 장관을 이룬다. 변산반도에서 서해 쪽으로 가장 많이 돌출된 지역으로 강한 파도와 바람의 영향으로 형성된 주변 경관과 해안 절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썰물 때면 파도가 오랜 세월 동안 만든 채석강의 너른 갯바위를 거닐며 파도가 빛을 자연 동굴을 구경할 수 있다.

### 적벽강 노을길, 채석강·격포항 등 9km 3시간 소요

### 꽃무릇 만개·바닷길 열리는 하섬·월명암 낙조대

### 쌍계재 아홉구비길, 모항갯벌체험장~왕포 7km 2시간 30분 소요

### 자연친화적 휴길·천연기념물 호랑가시나무 군락...주변엔 천문대·솔섬

채석강이라는 이름은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 이태백이 배를 타고 술을 마시면서 강물에 뜬 달 그림자를 잡으려다 빠져 죽었다는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채석강과 그 생김새가 흡사하다고 해 붙여졌다. 빼어난 경관 때문에 사진 촬영이나 영화 촬영지로도 인기가 있다.

채석강에서 해수욕장 건너 백사장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붉은 암벽으로 이뤄진 적벽강이 있다. 적벽강 역시 중국의 문장가 소동파가 술과 달을 벗하던 적벽강과 흡사하다 해 붙여진 이름이다.

관광명소인 만큼 격포 해수욕장과 채석강은 여름철 피서하는 물론 사계절 일몰 명소로 이름이 높다. 특히 채석강 해식동굴 일몰과 격포항 등대에서 맞는 일몰은 장관이다. 인근에는 서해의 일몰이 뛰어난 곳 중 하나로 꼽히는 월명암 낙조대가 있다.

적벽강 노을길은 계절별로 유채와 코스모스·꽃무릇·데이지 등이 만개해 아름다움을 전해주며, 하섬은 한 달에 여섯 차례 바닷길이 열려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사적 제541호로 지정된 부안 죽

막동 유적(수성당)과 분단국가의 아픔을 담고 있는 군부대 경비 초소·철조망이 그대로 남아 있어 역사 교육장으로도 손색이 없다.

### ◇계절마다 색다른 볼거리 '쌍계재 아홉구비길'

쌍계재 아홉구비길은 모항갯벌체험장에서 쌍계재, 마동방조제, 왕포로 이어지는 총 7km(2시간 30분 소요) 코스다.

쌍계재 아홉구비길 역시 해안선을 따라 걸으며 서해 절경을 품을 수 있으며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모항해수욕장이 위치해 있어 지질자원이 우수하다.

꽃무릇과 시누대 터널길 등 계절마다 색다른 볼거리가 있고, 해안 초소길을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휴길도 이색적이다.

특히 모항은 중국 산둥반도와 지근지처로 옛 중국과 교역했던 포구로 알려져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122호인 호랑가시나무 군락이 인근에 있다. 쌍

계재 아홉구비길 주변에는 모항해수욕장과 모항갯벌체험장, 호랑가시나무군락, 휘목미술관, 솔섬, 국립변산자연휴양림, 내소사, 곰소염전, 부안누에타운, 청소년수련원, 청림전문대 등이 있어 다양한 체험 및 교육활동이 가능하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전북일보 양병대 기자 <사진제공=전북 부안군>



신팔도유람은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5월 가정의달 맞이 신양파크호텔 감사 디너쇼

2018 Dinner Show

2018년 5월 3일 (목)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165,000원 (VAT포함)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룸케익증정) 16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



남궁옥분



임백천



이지현과 빗님들